국내 퍼스널 컴퓨터 산업의 과거와 미래

김 우 영
(엘렉스 컴퓨터 전무이사)

퍼스널 컴퓨터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제품은 여지껏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컴퓨터 업계에 몸담은 지 20년 남짓한 기간동안의 변화를 돌이켜 보면 외국의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국내 퍼스널 컴퓨터 산업의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고 앞으로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믿어진다. 다만 한가지 확신하는 것은 2000년대를 주도할 첨단산업중에 퍼스널 컴퓨터 분야가 한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우리나라도 복제단계를 지나 컴퓨터 개발을 주도하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내가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접한 것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곳인 한국 과학기술연구소가 되겠지만 퍼스널 컴퓨터로 범위를 좁히자면 아무래도 삼보 컴퓨터와 인연을 맺은 1983년부터이다. 삼보컴퓨터는 1980년에 설립되어 초창기 전무하다시피한 퍼스널 컴퓨터 시장을 개척한 모험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처음 회사가 설립되고는 Z-80을 사용한 SE-8001 제품을 개발, 생산하였으며 그 제품의 대략적인 사양은 다음과 같다.

- CUP: Z-80
- RAM: 48KB
- ROM: 4KB
- Display: 9인치 green monitor
- FDD: 5.25인치(143KB)

이 제품은 외부 기억장치로 카세트 테이프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지금의 관점으로는 장난감같은 제품이지만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생산된 퍼스널 컴퓨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념비적인 제품이라 하겠다.

최초의 국내 컴퓨터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긴 수명을 누리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글을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보 컴퓨터를 오늘날의 위치까지 끌어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다름아닌 1982년에 애플 컴퓨터호환기종 개발에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한글지원도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컴퓨터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된 것이다. 물론 지금의 시장규모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것이지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컴퓨터 제조업체가 많지 않았으므로 한 회사가 기반을 다지기에는 충분한 규모였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당시 개발된 애플 호환기종인 트라이젬 20의 사양을 짚고 넘어가 보자.

- CPU: 6502, IMHz
- RAM: 48KB~64KB
- ROM: 12KB
- Display: 12인치 모노 혹은 텔리비젼
- FDD: 5.25인치(143KB)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국내에서 컴퓨터 붐을 일으킨 원동력이 된 고객층은 바로 학생들이다. 그리고 애플 컴퓨터는 학생들의 구미에 맞게 칼라 그래픽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운드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쉽게 고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우기 문교부에서 학교에 보급할 목적으로 5,000대의 PC를 구입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 국내 컴퓨터 시장에 대기업들이 속속 참여 결정을 내림으로써 컴퓨터시장은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이러한 여러가지 호재가 도리어 국내 컴퓨털 시장을 긴 침체의 늪으로 몰고간 원인이 되고 말았다. 시장 침체의 요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교육의 부족이다. 학생들이 취미로 시작한 컴퓨터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이끌어 갈 만한 수준있는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따라서 컴퓨터가 단순한 취미용 수준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었다.

둘째로, 한글 지원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없었다. 취미나 교육단계에서는 한글지원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실제 활용단계에 이르면 아무래도 한글지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 버린다. 당시만 해도 몇가지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제외하면 실제 활용가능한 것으로는 스프레드 쉬트 프로그램인 비지캘크 정도밖에 찾아보기 힘들었으므로 컴퓨터 교육 붐을 실제 판매로 유도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즉, 당시의 상황은 분위기 조성에만 그치고 실제로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준비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정보화시대를 좀더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우를 범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삼보 컴퓨터에 몸을 담은 시기는 바로 컴퓨터 업계가 한창 불황의 몸살을 앓던 1983년 12월이었다. 그 당시는 무언가 돌파구를 찾지 않고는 회사 존립자체가 어렵던 시기였으며 자연히 분위기는 애플 호환제품을 대치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자는 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개발 대상제품으로는 당시 발표된 지 얼마안된 IBM PCXT호환기종으로 촛점이 모아졌다. 그러나 개발을 위해서는 IBM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롬 바이어스를 확보해야만 했다. 불행히도 당시 국내 기술수준으로는 IBM PCXT와 완전한 호환성을 가지는 롬바이어스의 개발이 불가능했으므로 부득이 미국의 엔지니어링 회사로부터 기술협조를 받아야 했다.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84년 가을, 마침내 국내 최초로 제2세대 PC라 할 수 있는 IBM PCXT호환기종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다행히도 사무자동화의 요구가 급증한 관계로 삼보 컴퓨터는 순조로운 성장을 계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한글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계속 개발되기 시작했고 더불어 국내 컴퓨터 시장도 기대 이상의 속도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후로도 삼보 컴퓨터는 IBM 호환기종을 계속 남보다 앞서 개발해 나갔고, 다행히도 별다른 어려움없이 성장을 계속하여 지금은 국내 굴지의 컴퓨터 전문업체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간단하나마 과거의 회상은 이 정도로 그치고 이제는 그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컴퓨터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

우선은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노력을 투자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실상은 우리나라 컴퓨터 회사는 대부분이 개발보다는 생산위주로 흘러가고 있으며 따라서 높은 부가가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주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편중되어 있어 파격적인 투자없이는 상당기간동안 외국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의존해야 할 형편이다. 실제로 내가 컴퓨터 국산화에 참여함에 있어 가장 확보에 애로를 느낀 부분도 바로 소프트웨어들이었다.

둘째로, 기초 기술의 확보이다. 우리나라의 생산기술이나 조립 혹은 기초적인 설계 기술은 이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부품면에서 살펴보면 아직도 선진국은 물론이고 이웃 대만과 비교해도 격차가 심각할 정도이다. 따라서 부품은 높은 가격에 수입해 오고 완제품은 과당 경쟁으로 인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이 역시 단기적인 노력이나 투자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분야이므로 정부 차원의 주도로 계획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과당 경쟁의 지양이다. 국내 실정상 퍼스널 컴퓨터 생산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시기는 처음 신제품이 등장한 이후 극히 짧은 기간뿐이다. 왜냐하면 곧 여러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인 데 선의의 경쟁은 얼마든지 환영할 만한 일이겠으나 경쟁의 영역이 해외에 까지 미치게 되면 이는 제 살 깎아먹기 식의 우를 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당한 이윤을 확보한 후 제품의 성능을 통해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이것이 가격경쟁으로 이어지게 되면 국내 경쟁업체의 수출단가를

낮추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각 참여업체들은 제품의 성능 향상을 통한 차별화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외관상으로는 극히 작고 별 것 없는 퍼스널 컴퓨터이지만 앞으로도 상상못할 정도의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이미 초창기의 대형 컴퓨터보다도 월등한 성능을 가진 퍼스널 컴퓨터가 등장한 지 오래이고 특히 전세계적으로 수백, 수천개의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미니 혹은 메인 프레임급의 컴퓨터보다 발전 속도는 월등할 것이다. 그렇다면 20세기말까지를 놓고 볼 때 과연 퍼스널 컴퓨터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제3세대 PC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영문위주의 시스템이 어느 나라 언어나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은 컴퓨터 관련 기술의 수준이 미국의 주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나라의 참여폭이 커지고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이므로 각국 언어의 지원이 필수적인 것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것도 단순히 각국 언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되는 수준이 아니고 각국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개념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로는, 음성인식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증권시세를 조회한다든지 하는 일상적인 작업을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지만 그때가 되면 아마도 지금의 전화기나 텔레비젼보다도 컴퓨터가 더욱 필수불가결한 문영의 이기로 자리 잡을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누구나가 사용하기 쉽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OS가 무엇인지 혹은 사용언어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누구나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할 나위없이 컴퓨터와 말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것이며 지금의 기술 발전속도로 보아 그러한 수준에의 도달은 10여년내로 가능하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지금의 데이타 처리 위주의 기능에 더불어 여러가지 다른 기능이 추가될 것이다. 예를 들면 전화기와 텔리비젼 기능 혹은 팩시밀리 기능을 갖춘 퍼스널 컴퓨터 같은 것인데 이와 더불어 크기는 극도로 소형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신기능이다. 지금은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 이 기종간의 데이타 전송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종에 관계없이 상호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퍼스널 컴퓨터가 여하한 모습으로 변화하더라도 변화가 없어야 하는 것은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인간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앞만 보고 뛰기 보다는 주위를 살펴 가면서 나의 노력이 혹은 나의 아이디어가 어떠한 형태로 결실을 맺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특히 삭막해지기 쉬운 컴퓨터 기술자들은 기술에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점에서도 앞선 인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